

## 교육내용 전달 방식에 따른 초등학생의 치과공포지수 차이

### Comparison on dental anxiety according to the type of oral health education

정 미 애, 하 정 은, 김 민 지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Jeong Mi-ae, Ha Jung-eun, Kim Min-Ji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Dental Hygiene

#### 요약

교육방식에 따른 치과공포지수 변화량 차이를 교육 전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식 교육군이 강의식 교육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학생들의 치과공포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직접 참여하여 불안의 유발을 피할 수 있는 참여식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반면, 연구대상자를 도계지역 1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초등학생을 대표하는 결과로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I. 서론

유년기의 구강건강관리는 평생의 치아관리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유년기는 치과공포증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치과 공포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진료 회피로 이어져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이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식 및 강의식 교육방식의 구강보건교육이 치과공포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4년 4월 현재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초등학교에 다니는 10세 아동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전신 질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인원은 참여식 교육군(실험군) 18명(45%), 강의식 교육군(대조군) 22명(55%), 총 40명(100.0%)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참여식 교육군은 남아가 12명(67%), 여아가 6명(33%)이었고, 강의식 교육군은 남아가 13명(59%), 여아가 9명(41%)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구분	합계	참여식 교육군	강의식 교육군
남	25명(62.5%)	12명(67%)	13명(59%)
여	15명(37.5%)	6명(33%)	9명(41%)
합계	40명(100.0%)	18명(45%)	22명(55%)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주에 걸쳐 총 2번의 교육으로 진행 하였으며 1차에 40분, 2차에 1시간 20분을 실시하였다. 1차 교육은 치과공포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설문지를 수거한 후 교육을 시작하였다. 참여식 교육군(실험군)에는 소아치과에서 사용하는 체계적 탈감작법(Tell(말)-Show(시범)-Do(시행))을 강의식 교육군(대조군)에는 power point(PPT)를 이용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2차 교육은 일주일 후에 실시하였고, 참여식과 강의식 교육법으로 교육 후 치과공포지수를 재측정하였다.

치과공포지수의 설문 내용은 ‘내일 치과에 가야한다면 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치료 받을 차례를 기다릴 때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치과에 들어가 환자용 의자에 앉아있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 웅웅 소리가 나는 기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깨끗한 치아(스케일링)를 만들기 위해 환자용 의자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이 나오는 기계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었고, 최저점은 4점 최고점은 20점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SPSS for windows version 19, SPSS INC) 통계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남·여, 성별, 참여식과 강의식의 비율을 나눠서 학생 수를 비교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치과공포지수 변화량은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교육방법에 따른 치과공포지수 변화량 차이를 교육 전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식 교육군에서 교육 전 지수가  $9.61 \pm 3.24$ 점, 교육 후 공포 지수는  $7.13 \pm 3.35$ 점으로 ( $P < 0.001$ ) 치과공포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강의식 교육군은 교육 전  $11.14 \pm 3.88$ 점, 교육 후  $10.59 \pm 4.16$ 점이었다.

물론, 교육 전 후 치과공포지수의 변화는  $10.45 \pm 3.64$ 점에서  $9.03 \pm 4.15$ 점으로( $P=0.002$ ) 유의하게 감소하였다(표 2).

표 2. 교육방식에 따른 치과공포지수 변화

구분	교육 전	교육 후	p-value
전체	$10.45 \pm 3.64$	$9.03 \pm 4.15$	0.002
참여식 교육군	$9.61 \pm 3.24$	$7.13 \pm 3.35$	<0.001
강의식 교육군	$11.14 \pm 3.88$	$10.59 \pm 4.16$	0.404

평균 ± 표준편차

\* paired t-test에 의함

## V. 결론

교육방식에 따른 치과공포지수 변화량 차이를 교육 전·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식 교육군이 강의식 교육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 ■ 참고 문헌 ■

- [1] G. Kvale, E. Berg, and M. Raadal, "The ability of Corah's Dental Anxiety Scale and Spielberger's State Anxiety Inventory to distinguish between fearful and regular Norwegian dental patients," *Acta Odontol Scand*, Vol.56, pp.105-109, 1998.
- [2] H. Buchanan and N. Niven, "Validation of a Facial Image Scale to assess child dental anxiety," *Int J Paediatr Dent*, Vol.12, pp.47-52, 2002.